



이달에 만난 환경인

(주)성우식품 환경관리실 김명제 실장



필자에게 있어 김명제 실장은 늘 관심 안에 있었다. 지난해 대한민국 환경관리장' 심사서류를 보며, 어느 기업보다 정리가 잘된 성우식품의 환경개선사례 관련 서류철을 대하면서 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환경관리가 꽤나 복잡하다고 하는 식품업체의 환경현장이 아니던가.

봄의 전령사가 코끝을 맴돌던 지난 3월 중순, 오랫동안 가졌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가 땀흘리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주)성우식품을 찾았다.

(편집자 주)

"제일 열악한 분야가 제일 깨끗하대요."



각종 젓갈류를 생산하는 업체여서인지 오징어내장을 비롯한 각종 생선냄새가 필자를 먼저 맞았다. 하루 수십톤의 성상이 다른 폐수 및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식품회사의 환경관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근무환경에서부터 압도되고 만다.

설명하기 힘든 냄새를 뒤로 성우식품의 환경관리 총책임자 김명제 실장을 찾았다.

정문 관리소에서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대부분 현장을 누비는 업무의 특성상 정확한 위치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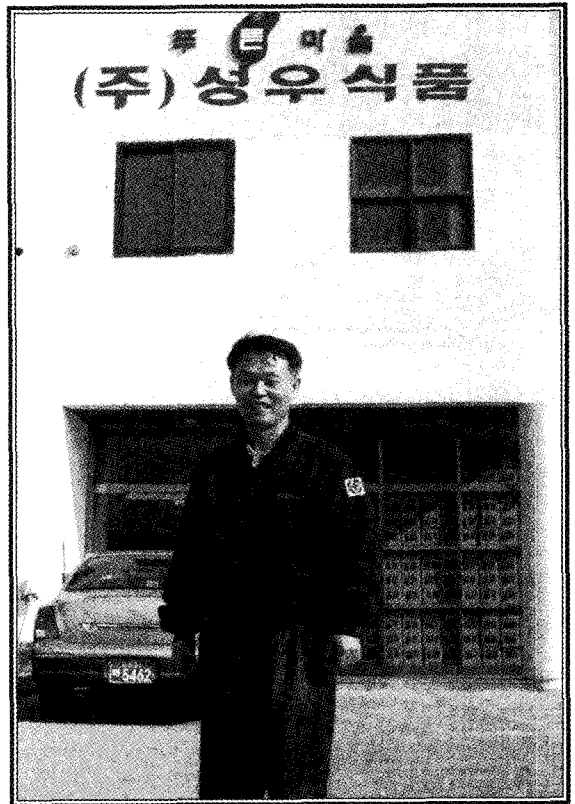
폐수처리장이 위치한 공장 뒤편 작은 사무실.

그가 폐수성상을 실험하고 기록하고 업무일지를 쓰는 듯한 작은 책상이 발견되었다. 환경관계법규책, 회보 등이 책꽂이에 뽁뽁이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는 실험장비 등이 잘 정돈되어 있다. 그 흔한 컴퓨터 한 대 올려져 있지 않은 책상을 보며 환경관리현황을 D/B화하지도 않은 듯한데 어떻게 서류를 그렇게 치밀하게 정리했을까, 싶어 필자의 궁금증이 더해갔다.

이윽고 작업복을 입은 그가 들어왔다. 필자는 지난해 '대한민국환경관리장' 심사서류에서 어느 업체보다 깨끗하고 정리가 잘된 서류에 대해 궁금했다. "퇴근 후 집에서 틈틈이 정리했습니다. 회사 및 환경관리현황에 대해 평소 정리해둔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요. 뭐 잘됐습니까? 하하하."

제품생산공정,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폐수배출오염물질농도 및 처리공정, 수질관리현황, 악취 및 대외환경보전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자료에 있어 모자람이 없었다. 환경관리 개선전후 효과분석 및 대안제시는 타업체의 모델이 되고도 남을 정도의 내용으로 필자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56년생인 그는 여수수산대학 가공과를 졸업, 한전유화공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던 중 수질관리 자격증을 취득, 자연스럽게 환경관련 일을 시작하고 대신산업을 거쳐 97년 최악의 폐수를 배출한다는 식품회사 환경관리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꼼꼼하고 원칙과 정직을 고수하면서 일을 해나간다는 그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는 자세가 관리인들에게 필수라고 강조한다. 실제 중소기업 환경관리의 고참격인 그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소문이 나 있다.

원칙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환경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자세, 바로 이것이 지금 경영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 환경관리인으로 일하면서는 후회도 많았다고 그는 솔 회한다. 무엇보다 이룬 성과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지만 퇴근시간이 없이, 휴일도 없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영인까지 설득해나가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가끔은 회의가 들기도 했다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을 늘어놓는 그에게는 내일만 존재하는 것 같다. 먼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험중인 '디오콘'에 대한 설비도입도 모색해야 하고, 어렵게 처리하고 있는 환경관리현황을 후배에게 물려주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정리도 해야 한



이달에 만난 환경인

(주)성우식품 환경관리실 김명제 실장

다. 또한 환경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도 해야하고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원들의 환경의식 고취도 중요하고, 인천협의회 발전을 위한 생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이다. 오랫동안 협의회 회원으로, 임원으로 뿔 그는 "성우식품처럼 환경관리의 애로

실시해야 하고 취업정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소속 지역협의회에서는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며, 이러한 관리가 연합회 차원에서도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차근차근 성우식품의 환경관리실태와 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발전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를 보며 '이렇게 바쁜 사람이 가끔씩 환경관리인으로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아쉬워할 수도 있나' 싶다.

완연한 봄이다. 희망을 꿈꾸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술을 좋아하는 그가 이 봄에는 건강관리와 더불어 환경보전의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한다.



점이 많은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애로가 많네요."며 회원들의 환경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단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경력환경관리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고 한다. 이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관리인연합회 및 지역협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자리를 마련, 환경정책의 흐름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의 고견이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관리인들의 위상정립과 관계법규교육을

성우식품의 환경관리는

성우식품은 양념젓갈류 가공식품회사로서 폐수처리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질 4종사업장으로 일일 폐수처리량이 150m³이 발생하며, 유입 BOD 농도가 15,000~20,000ppm, COD 농도 80,000~10,000ppm, SS 농도 6,000~8,000ppm, 염분농도 5~7% 정도이다. 1차 가압부상처리, 2차 활성오니처리를 하여 방류수질이 BOD 농도 30~50ppm, COD 농도 70~90ppm, SS 농도 30~50ppm의 수질로의 방류를 위해 매시간별로 점검항목을 설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식품업체의 특성상 위생관념이 중요해 어느 업체보다 환경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외국의 거래처가 방문하면 환경관리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 관례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가장 열악한 분야가 제일 깨끗하네요."라는 말로 환경관리현장을 칭찬한다. 수역원의 환경설비투자와 시스템구축으로 안전한 환경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성우의 향후 과제는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